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연중 제23주일
2023년 9월 10일
제2582호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용서는 도전이요, 용서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태오 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해 쓰였던 복음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사람들, 즉 자기들의 율법과 가르침에 충실했던 이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마태오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던 복음입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교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타이르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나중에는 교회의 타이름을 듣게 하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은 오늘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며 용서를 탓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바로 용서를 이루려고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용서는 결과가 아니요,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질서 지우는 일입니다. 한 방에 끝나는 용서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 번 용서하면서도 그 천 번의 용서가 그냥 딱 한 번 그 인간 얼굴을 보고 나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는 도전이요, 용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를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를 선택하고, 힘들지만 용서의 방향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삶, 용서가 우리 생애 최고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 신앙인들의 벅찬 운명입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내가 삽니다. 이것이 용서에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아멘.

노중래 비오 **신부** | 석전동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에제 33,7–9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로마 13,8–10
복 음	마태 18,15–20

나는 몸이다

조정자 이사벨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문득 몸이 모든 관계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줄곧 혼자 걸으며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몸의 한 부분이 장애가 있으면 비장애인과 쉽사리 어울리지 않듯이 나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유사한 특징이 있었다. 식성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이다. 식당에 가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다. 원래부터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과 버터를 안 먹었다. 스페인의 모든 요리에는 거의 버터가 들어갔다. 굽고 부치고 볶는 데는 버터가 기본이다. 빵도 반죽할 때 버터가 상당량이 들어간다고 한다. 식성은 내 의지로 잘 바뀌지 않았다. 극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라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다. 그러나 일말의 여지가 있는 동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싶었다. 약은 예외다. 그래서 몸에 맞는 음식만 먹다 보니 끼니때마다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삼시세끼에서 벗어나 먹었던 양을 살펴보면 하루 한 끼 정도밖에 안 되었다. 미용과 건강, 어떤 결의로 한 끼만 먹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몸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리되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 보지만 마땅한 말이 없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나 보다. 그렇다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사실상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삼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야겠다.

여럿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그중 한 명이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있으면 매우 밉상일 것이다. 내가 거기에 속하였다. 숙소에 도착해 여러 나라 순례자들과 같이 어울려 레스토랑에 갔을 때의 일이다. 닭, 생선, 돼지, 쇠고기로 구분해 이 중에서 구운 거냐 찐 거냐 부친 거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매우 난감했다. 그래서 술안주용으로 많이 주문하는 감바스 알 하이오를 시켰다. 새우에 마늘을 듬뿍 넣어 오븐에 구운 요리이다. 그런데 여기도 버터가 자글거렸다. 이후부터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피하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가 되었다. 식성 때문에 고립이 된 것이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 친구와 일가친척, 성당 교우들을 만났을 때도 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이룬 다음 식사 자리로 연결된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배려와 함께 누군가가 견뎌주었기에 별 탈 없이 지나온 것 같다.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태도이고 태도는 몸으로 표현이 된다. 무엇을 어떻게 느끼며 어떤 것을 수용하고 거부하며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의 한계도 결국 몸에 달렸다. 식성을 통해 세상과 어울리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누구보다도 선제적으로 더 많은 양보와 견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도 쉽사리 바꿀 수 없는 몸 때문이다. 외롭고 쓸쓸한 순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향이 아닌 몸이다. 마음은 나를 떠나 온 우주를 비행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와 충돌을 일으키지만, 몸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몸이 나다.

회원동본당 평화의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회원동본당(주임: 하춘수 레오 신부) 신약의 성궤 Cu. 소속 평화의 모후 Pr.(단장: 정말연 마리아)은 8월 23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평화의 모후 Pr.은 1983년 1월 13일 설립되어 현재 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20년 전 단원 부족으로 호도를 반납할 위기도 있었으나, 잘 극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록 단원 수는 적지만 성모님의 군대로 당차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2,000차 기념 주회를 계기로 단원들은 큰 용기를 얻었으며, 하느님 보시기에 더욱 열심히 하는 레지오 단원이 되기로 다짐하였다.

중앙동본당 전 신자 소공동체 모임

중앙동본당(주임: 권창현 요셉 신부)은 8월 20일 교중미사를 봉헌한 후 전 구역 소공동체 모임을 실시하였다. 중앙동본당 내 구역반은 1구역에서부터 9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날 구역반 모임에는 142명의 본당 신자가 참석하였다. 지난 7월 본당 주임 신부와 구역분과 위원들은 본당 신자 모두가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소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와 친교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 구역분과장은 "구역 또는 반 모임이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교회, 소공동체 교구 사목 방침에 작으나마 동참하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였다.

세례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 자연수를 축복하여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축복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853~854조) 자연수는 수돗물, 생수, 샘물, 강물, 바닷물, 빗물 등을 의미하며 포도주, 술, 우유, 커피, 차 등 순수하지 않은 물로 세례를 받았거나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말의 형식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형식으로 수여되어야 합니다. 세례성사의 효력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의 형식이 아니라면 세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톨릭교회에서도 말의 형식을 변형시켜 세례를 수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또는 "나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성화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등의 형태로 세례를 받았다면 말의 형식을 변형시켜 생기는 교리의 오류로 인해 세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2008년, 2020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세례성사의 유효성'질문의 답서 참고)

Q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가톨릭교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가톨릭에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개신교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례의 유효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우선 정교회와 성공회는 가톨릭과 세례성사의 재료와 형식이 일치하기에 이들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증명서나 사진이나 본인의 증언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59조 참고)

따라서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교리 교육과 보충 예식(세례명, 도유 등)을 통하여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또한 유효한 세례를 받은 개신교 신자나 정교회, 성공회 신자가 천주교에 입교할 경우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할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고 「어른 입교 예식」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창원종합사회복지관(구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창원이주민센터 이전 축복식

8월 31일 창원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함영권 유스티노 신부)·창원이주민센터(센터장: 윤종두 요한 신부) 이전 축복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를 비롯한 교구 사제, 수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복지관 이전은 창원시 신월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구 마음의 집(노인요양시설)을 개조하여 지난 6월에 현 장소로 이전하였다. 창원종합사회복지관과 창원이주민센터는 오는 10월 10일,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개관식을 열 예정이다.

순교자 성월에 특별한 신심을 다짐하는 상남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성전에 들면, 감실의 불빛이 붉게 빛난다. 그 아래 모셔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의 빛이 더해져 유난히 부신다. 미사 전 구약성경 판관기를 함께 읽는 신자들은 사뭇 진지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교구에 새 주교를 하루빨리 보내주십사는 지향을 담아 사제를 위한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기도문을 바치며 한층 마음을 가다듬는다.

최양업 신부와 함께 걷기

상남동성당의 본당주보는 '한국순교성인'이라 9월 순교자의 성월에는 특별한 신심을 북돋운다. 올해 본당의 날에는 최양업 신부를 기리기 위해 안동교구에 있는 진안리 성지순례를 하기로 정했다. 최양업 신부가 사목하다 돌아가신 진안리 성지라서 의미가 깊다.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니라 '일상 안에서 최양업 신부님과 함께 걷기'라는 과제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다. 최양업 신부는 사목을 위해 일 년에 7천 리를 걸어, 11년 동안 30,240㎞를 걸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거리를 봉헌해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4㎞를 5,000보 또는 1시간 걷기로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1구좌 4㎞에 천 원을 봉헌하면 된다. 8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일 또는 매주 걷는 것을 봉헌함에 넣으며, 목표액 7,560,000원을 모금한다. 봉헌금 전액은 진안리 성지에 후원하기로 했다.

9월 10일 온 신자들이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기원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도 걷기는 이어진다. 창조질서를 회복·보전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 1일부터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창조 시기'로 정하여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상남동신자들도 지구를 살리는 정신으로 걷고, 최양업 신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남다른 애정으로 사목

상남동 출신인 진선진 마태오 신부는 지난해 이곳 주임 신부로 부임했다. 서품 35년이 흘렀지만, 많은 옛 신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 젊은 날 느꼈던 역동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연로한 신자들과 조촐한 본당 상황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상남동본당은 1966년 마산교구가 설정되고 같은 해에 야심차게 교구청 가까이에 설립된 본당이다. 마산의 중심 불종거리에서 자부심을 키웠던 왕성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본당도 그 변화를 힘들게 견뎌내고 있다.

진선진 신부는 애정 어린 심정으로 본당의 면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사목방향을 잡았다. 연로한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니, 이분들이 기도생활로써 차분히 삶을 관조하도록 인도하고 싶었다. 관상기도를 권하며 향심기도 강좌를 마련하여 진행했다. 이제 향심기도 강좌 8회기를 수료하게 되었고, 본당 내 정례적인 향심기도 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도에 맛들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픈 이들을 위한 축복기도와 안수는 매월 첫째 주일 교중미사 후에 이루어진다. 미사 후 아픈 신자들은 제대 앞줄에 모여 특별한 시간을 누린다. 40여 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픈 곳을 일일이 알리며 안수를 받는다. 신자들은 병을 자랑하며 위로받고, 사제는 연민으로 사랑을 키운다. 사제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하느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미를 담아 행하는 신심

그냥 의례적이거나 갇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지난해는 수단에 우물을 하나 파도록 1,200만 원을 기증하게 되었다. 신자들이 축복식 등으로 바치는 감사헌금을 모았고, 부족한 금액은 연령회와 다른 신심단체에서 보탰다.

성탄절 봉헌도 특별했다. 성탄 생태단식을 권장하며 한 주간마다 테마를 정해서 실천했다. 대림1주간 '일회용품 단식' 대림2주간 '디지털 단식' 대림3주간 '이산화탄소 단식' 대림4주간 '소비 단식'에 따라 절약하여 모았다. 미혼모 시설, 폭력피해자보호시설, 공부방 세 군데 복지기관을 정해서 '1인1봉헌'을 구유에 봉헌했다. 현금은 지양하고 모든 봉헌은 물품으로 하여, 대림절 동안 신자들이 모은 정성은 각 복지기관에 전달되었다. 절약을 하되 의미와 과정을 깨닫게 되고, 희사를 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진호 베드로 사목회장은 신자들에게 뭔가 주려고 늘 고민하는 주임 사제에게 많이 배우고 감사드린다고 말한다. 어릴 때 영세를 받고 어영부영 생활을 하다가, 상남동 성당에 전입한 지 15년 정도 되었다. 이곳에서는 레지오 활동을 하고 부부 복사도 하면서 알차게 주님을 만난다. 다른 사목위원들 덕분에 회장 역할도 순조롭단다. 25년 차 하인태 제리노 사무장은 상남동 성당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정신이 투철하다. 이 지역사회에서 항상 신뢰받는 공동체로 '상남동 성당'이라는 이름은 한결같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신자 중에 70세 이상이 절반이다. 중학생은 아예 없고, 초등과 유치반을 합쳐 10명 정도이니 주일학교 운영은 힘들다. 이들 중 첫영성체를 한 7명은 모두 복사단으로 만들었고, 유치반까지 해서 10명 전체로 소년 레지오를 운영한다. 청소년분과장이 단장을 맡아 훈화 시간에 그나마 약간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앙을 키우려고 애쓴다. 아이들은 매주 들락날락하지만, 그래도 이 적은 수, 작은 아이 속에서 성소가 있기를 기다린다. 1983년 정흥식 신부, 1988년 진선진 신부, 1992년 조정제 신부 서품으로 30여 년 중단된 본당 출신 사제의 희망을 그려 본다. 그래서 인근에 완공이 가까워지는 고층아파트의 입주도 기대하고 있다.

견진성사
일시: 9월 17일(주일)
장소: 팔용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9월 12일(화) 14:00/ 장소: 교구청

9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9월 17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219차 ME주말 안내
일시: 9월 15일(금) 19:00~1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공동체미사 시간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창원이주민센터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7:3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2차 모집
접수: 8월 14일(월)~9월 13일(수)/ 전형일: 9월 16일(토)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문의: 02·705·8678/ www.soganggame.ac.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 지원 대학 선정
·취업률 73.7% 충북권 1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원서접수: 9월 11일(월)~15일(금)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문의: 043·270·0100~0102

청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9월 16일(토) 09:00~17:3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김웅렬 신부, 한연흠 신부, 오웅진 신부
찬양: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2023~2024 청소년 성소계발과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 및 일반 신자/ 분량: A4 2장 이상
마감: 2024년 3월 17일(주일)까지
시상: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 원), 우수(50만 원), 장려(20만 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 www.clak.or.kr 참조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길 25-12)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한국교회 첫 순교자 유해 발견 기념 다큐멘터리
〈230년 만의 만남, 바우배기 세 순교자〉

전주교구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교회의 첫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복자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유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를 정확히 알리고자 2021년 6월부터 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을 진행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방송시간: 가톨릭평화방송
9월 9일(토) 23:00 본방
9월 10일(주일) 16:00
9월 15일(금) 13:00
9월 16일(토) 00:00
문의: 전주교구 홍보국 063·230·1037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9월 11일(월) 19:00	중앙동성당	내마음의 바람길을 청하자	김향숙 마틸다(전주교구)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9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9월 17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10월 16일 출발 남스페인과 모로코 순례 13박 14일-495만원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나가사키 순례 3박 4일-125만원
bn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2

한미옥 아가다(사림동본당)

저희 세 사람(정미자 율리아나, 황수연 율리아, 한미옥 아가다)은 5월 27일 웅천 공소를 시작으로 사량공소, 욕지공소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여 두 번째 공소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소 순례는 세 번에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순례를 할 때마다 하늘도 저희의 공소 순례가 반가웠는지, 어찌나 맑고 눈이 부시게 좋은지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첫날은 웅천, 예구, 율포, 산달, 상리, 수정, 가배 등 11곳의 공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공소마다 작지만, 그 나름대로 공소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지금까지 공소를 지키려고 애쓰고 계시는 교우분들… 아마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공소라는 곳이 지금껏 남아있지는 않겠지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우분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먹먹한 마음에 눈물이 나, 기도 후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가배공소입니다. 저희 세 사람은 가배공소를 찾아가서 보고는 설마 하는 마음에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너무 놀랐고 설마 이곳이 공소일까?' 하는 의문에 몇 번을 다시 봤지만 역시나 그곳은 가배공소였습니다. 완전 폐허가 된 듯한 모습에 이곳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성모상이 다 부서지고 발만 남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 지금껏 무심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가배공소를 떠나면서 앞으로는 이런 곳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다짐을 하였습니다.

욕지공소

마지막 날 사량공소와 욕지공소를 방문 할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인지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욕지공소는 다른 공소와는 다르게 외벽이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색칠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라 여행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 교우분들의 수고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주변 경관도 아름다웠습니다. 시간만 허락했다면 좀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공소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희 세 사람은 이렇게 공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공소는 '그저 교구청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공소 순례를 하면서 교구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좋은 공소 건물은 짓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공소들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판관 사무엘과 왕정 제도(1사무 7,2-8,22)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계약의 궤가 키르얏 여아림에 머문 지 이십 년이 지났습니다. 키르얏 여아림이 유다 지파와 벤야민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한 성읍이라면, 이번 순례는 주로 벤야민 지파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7장 2절부터 17절까지는 판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이 부분은 판관기의 전형적인 도식에 따라 서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향해 탄식하였고, 이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판관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판관기에 소개된 판관들이 주로 군사적인 영웅이었다면 사무엘은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판관입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의 신들을 치워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길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츠파의 집회에서 백성들에게 기도와 단식,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정화 예식을 갖게 하고, 그곳에서 판관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문을 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공격해오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며 기도할 때 필리스티아군이 공격하였고, 주님께서는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들이 후퇴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벳 키르까지 추격하며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츠파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 돌을 '도움의 바위'(에벤 에제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로 필리스티아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평화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일생 동안 베텔과 길갈, 미츠파와 라마를 돌며 순회 판관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판관기의 도식에 따른 전형적인 결말이지만 사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무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하였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7장의 판관 사무엘 이야기는 신명기계 역사가의 이상적인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느님께 충실하고, 지도자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가 되며, 하느님께서는 몸소 백성을 지켜주시는 세상입니다.

판관 사무엘의 일생에 대해 언급한 7장에는 사울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 설립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8~12장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번 순례에서는 8장의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 소개되는 것은 판관들의 리더십의 실패였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가 브에르 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는데 그들은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고 뇌물을 받아 판결을 잘못 내렸습니다. 둘째 요인은 필리스티아인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강력한 군사력과 날로 확대되어 가는 상권을 보호해 줄 중앙 집중적인 지배 체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차로 국가적인 틀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주변의 민족들처럼 그들을 통치할 임금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가 하느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 마음이 언짢았지만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임금의 권한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임금이 그들에게 세금과 징집, 강제 노역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이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계속해서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주님께 호소하자 주님께서는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왕정의 도입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순례에서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혼백으로 나타난 사무엘
출처: 굿뉴스(from Wellcome Collection gallery)